

사진 촬영: 조 링크



템플스퀘어에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세계 전역의 회원들과 군인들에게 재방송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공연하는 중이다.

##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8월에 크리스마스 경축

에비 올슨, 교회 잡지

**20**06년 8월 19일,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나뭇가지, 화환, 조명, 그리고 포인세티아가 무대를 장식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음악과 애국적 음악이 울려 퍼졌다. 템플스퀘어에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국제 복지 재단인 Feed the Children [어린이를 먹이러] 및 특별 출연진과 함께 군인들을 위해 12월에 재방송될 크리스마스 감사 콘서트를 공연했다.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수상 경력이 가장 많은 여성 성악가인 샌디 패티, 초청 사회자인 로리앤 크룩, The Nashville Network [내쉬빌 네트워크]의 TV 방송인이자 일일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자인 찰리 체이스와 The Band of the Air Force Reserve [공군 예비역 밴드]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에 합류했다.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콘서

트에 참석했다.

무더운 8월 저녁, 수백 명의 관객이 즐긴 전통 캐럴 중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주 믿는 신도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의 크리스마스 음악으로는 “The Most Wonderful Christmas Waltz”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왈츠], “I Saw Three Ships” [나는 배 세 척을 보았네], “Sleigh Ride” [썰매타기] 등이 있었다.

로리앤 크룩은 더운 여름철에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크리스마스 절기에 방송될 때 그들이 느끼는 온정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전역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연주된 많은 곡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이 대립으로 가득찬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주기 위해 문화와 배경과 전통을 초월하여 퍼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



템플스퀘어에서 오케스트라와 미 공군 밴드가 채드 에이 셸리의 지휘 하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

콘서트가 끝나자 연주자들에게 기립 박수가 주어졌고, 관객들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가 앙코르로 “전승기”를 연주할 때까지 다시 앉을 줄을 몰랐다.

The Armed Forces Radio and Television Service (AFRTS) [국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연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오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그 콘서트를 라디오에서 60분동안 방송할 것이다. 복지재단 Feed the Children [어린이를 먹이러]은 추수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콘서트를 TV를 통해 30분과 60분 프



사진 촬영: 조진 무크

현대 기독교 음악 성악가인 샌디 패티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로그로 방영할 것이다. ■

## 힝클리 회장, BYU 건물 기공식에서 96번째 생일 기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삼과 흠으로 자신의 96번째 생일 축하 모임을 시작했다.

수백 명의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 교직원, 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힝클리 회장은 프로보에 있는 이 대학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니게 될 7,432평방 미터 건물의 건축을 개시하기 위해 손에 삼을 들고 흠을 떠 올렸다.

힝클리 회장은 2006년 6월 23일, 새로 지은 고든 비 힝클리 졸업생 및 방문자 센터의 기공식 축하 모임에서 하객들에게 “여러분은 오늘 하시는 일을 통해 세계 명예와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하객들에게 감사를 나타냈고, 2003년 사회 복지 사업 및 사회학과의 한 교수직이 그의 아내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의 이름을 지니게 됨으로써 2004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 또한 BYU에서 예우를 받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자리를 저의 건물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겠죠.”라고 그는 말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그리고 힝클리 회장의 아들인 클라크 힝클리 형제 또한 기공식

에서 말씀을 전했다. 가족들, 힝클리 회장의 제일회장단 보좌들, BYU 이사회 임원들,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기증자들이 기공식의 일환으로 첫 삽을 뜰 때 힝클리 회장과 함께 참여했다. 그 후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도구함에서 가져와 기공식에 사용된 삽을 기증했다. 기공식 후 즉시 건축이 시작되었다.

BYU 이사회는 2005년 10월, 이 신규 센터의 부지 조성을 승인했으며, BYU

의 세실 오 새뮤얼슨 회장은 그 다음 달에 신규 건물에 대해 발표했다. 건물을 위한 기금은 모두 사적 기부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는 교회 회장들의 이름을 딴 건물이 그 외에 여덟 채 있다.

“이 새 건물은 건물 이름의 소유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지어진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저는 새뮤얼슨 형제가 제가 이미 받은 죽은 사람이므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고든 비 힝클리 졸업생 및 방문자 센터는 2007년 가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힝클리 회장의 이름을 지닌 또 하나의 건물이 2002년 10월 BYU 아이다호에서 헌납되었다.

그 건물은 BYU의 입구이자 졸업생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힝클리 회장과 그의 삶을 기리는 곳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브리검 영 대학에서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진 건물의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

BYU 졸업생 웹사이트는 “교육, 사회 복지 활동 및 국제적인 친선 도모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의 노력 덕분에 그의 이름은 이 건물의 주요 목적을 환기시켜 준다.”라고 밝힌다. 그는 교회의 “특명 대사”이며 “그의 오랜 삶은 관대함과 이해심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기공식 후에는 가족, 초대 하객, 그리고 대학 지도자들이 핑클리 회장에게 사적 오찬을 접대했다. 핑클리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찬사를 표했으며, 새뮤얼슨 학장은 그의 이름을 지닐 새 건물을 상징하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 한 장을 그에게 선물했다.

핑클리 회장은 1995년 이래 교회의 제15대 회장으로 봉사해 왔다. 그 이전에, 그는 제일회장단 보좌로 14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20년을 봉사했다. 핑클리 회장은 수많은 성전을 헌납하고

교회 회원들을 만나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회원 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250만이 넘는다. 그는 여러 명의 주요 뉴스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 바 있다.

CBS 방송 기자인 마이크 윌러스는 작년 핑클리 회장의 95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Celebration of Life [생의 축전] 프로그램에서 그에게 찬사를 표했다.

윌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건설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청소년과 선교사들의 건설자 ... 인격과 신앙의 건설자, 그리고 이 모두로 인해 사람들의 건설자였습니다. ... 그 속도로 인해 피곤할 만함에도 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 줌으로써 그가 사랑하는 조직을 세우도록 돕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만 했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여전히 그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라고 엘리야나 시에라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여행을 하여 그곳에서 봉사하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희생하며 돈을 저축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척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며, 성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시에라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자 수고하신 핑클리 회장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회원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과테말라 성전에서 온두라스 회원들의 참석률은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 성전이 있게 됨으로써 참석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시에라 회장은 말했다.

중미 지역에서 과테말라 성전 이외의 성전은 코스타리카 산호세(2000년)와 파나마 파나마시티(건축 중)에 있다. 이로써 온두라스 성전은 중미의 4번째 성전이 된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축 중이거나, 제일회장단 서신을 통해 공고된 성전 중 교회의 134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온두라스의 교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와 중미 선교부의 고든 엠 롬니 회장을 통해 복음이 처음 소개되었던 1952년 이래 성장해 왔다. 그들은 호텔 웨이터에게 물문경을 한 권 주었으며 그는 이후 침례를 받았다. 한 달 후에 선교사들이 온두라스에 들어왔다. 첫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1953년 3월에 테구시갈파에서 첫 집회

## 중미 성도들, 온두라스 성전 발표로 기뻐하다

**테** 구시갈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공고하는 2006년 6월 9일자 제일회장단 서신이 온두라스 회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은 나라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회원들은 무척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커다란 의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개방을 위해 자신들과 회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온두라스 공보 책임자이자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선교부 회장단 제1보좌인 호르헤 시에라 형제가 말했다.

온두라스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테구시갈파의 인구는 160만명이 넘는다. 새로운 성전은 그중에서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사는 168,000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테구시갈파에서 약 34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1984년에 헌납된) 과테말라 시 과테말라 성전이다.

그 지역의 성도들은 시간과 돈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로 가서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여행해야



최근 발표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이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파나마에서 건축 중인 중미 성전에 합류하게 된다.

가 조직되었다. 현재 온두라스에는 3개의 선교부, 즉 코마야구엘라, 산 페드로 술라, 그리고 테구시갈파 선교부가 있다.

2005년 12월 추정치에 따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지난 5년 동안 중미에서 교회 회원 수가 가장 급성장한 나라들이다. 니카라과에서 교회 회원 수는 약 50퍼센트, 온두라스에서는 약 16퍼센트 증가했다.

시에라 회장은 성전이 일반 공개를 통해, 또한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와 지도자들이 저활동 회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대화의 주제가 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교회의 성장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온두라스의 교회 회원 수는 약 6,300명이었다. 오늘날, 회원 수는 116,000명이 넘는다. 1989년 니카라과 마나agua 선교부 조직 당시에 니카라과의 교회 회원 수는 3,453명이었다. 오늘날 니카라과 성도들의 수는 52,000명을 넘어섰다.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니카라과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

## 후기 성도들, 중동에 원조를 보내다

**교**회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슬람교와 헤즈볼라 세력 사이의 충

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에 응

했다.

유엔 담당자들은 그 싸움으로 추방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약 800,000명의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도움을 줄 만큼의 물품을 요청했다.

교회는 의약품, 분유, 유아용 혼합 분유, 비누 및 위생 용구를 기증했다. 이러한 물품은 Islamic Relief Worldwide[이슬람교 세계 구제 기구에 의해 피해 지역에 전해졌다. 비행기 한 대 분의 물품이 2006년 8월 1일 화요일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며칠 후 레바논에 도착했다. Islamic Relief Worldwide와 레바논 개발 및 교육 기관인 Hariri Foundation[하리리 재단] 대표들이 분배를 감독했다.

교회는 국제 적십자사의 이스라엘 지부인 Magen David Admon의 재정적 지원 요청에도 응했다. 그 기부금은 Magen David Admon의 헌혈 프로그램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구급차 출동을 지원하고 또한 각 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도록 이스라엘 하피아 시에 주어졌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종교, 인종, 민족, 또는 정치적 신조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수행했으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는 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5쪽)

## 발이 아닌 신앙으로 회원이 “건다”

애비 올슨, 교회 잡지

11살 어느 날, 빅터 페나피엘은 콜롬비아의 집 근처 기차역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수업은 끝났고, 그는 기차에 뛰어오르기로 마음먹었다. 기관사들이 그에게 내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다시 뛰어올랐다. 그들은 두 번 더 그를 보고 내리라고 했다. 그것은 그에게 기차에서 내려오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출발했을 때 그는 균형을 잃었으며, 기차 아래로 떨어져 두 다리가 기차에 깔렸다. 심한 고통 때문에 그는 반사적으로 왼팔을 아래로 움직였다. 빅터는 엉덩이 밑 양쪽 다리와 팔꿈치 바로 밑의 팔을 잃었다.

더 먼 곳의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면 그는 살아서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그는 수혈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부족했다. 그들은 가까운 해군 기지에 피를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한 명을 요청했는데, 열한 명이 왔습니다.”라고 빅터는 회상했다. 그런데 열한 명의 혈액 기증자 모두가 그와 같은 혈액형이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그를 치료했고, 세 개의 수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빅터는 말했다.

빅터는 휠체어를 탄 채 그의 삶을 살았지만, 장애가 자신의 신앙을 제약하지 못



사진 촬영: 애비 올슨

소년 시절 기차 사고로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잃은 빅터 페나피엘은 나중에 에콰도르 강을 횡단하는 수영 대회 이후 조국 동포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도록 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도 더 지난 후, 몇 년 전 시작된 또 다른 일련의 작은 기적들로 인해 그는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 첫 걸음

다시 걷는 길을 향한 첫 걸음은 사실 물 속에서 이루어졌다.

23살 때, 빅터 페나피엘은 수영장 구석에 꼭 매달려 다른 사람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의 친구인 알투로 에스피노사는 그가 수영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빅터는 물을 무척 두려워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한쪽 팔밖에 없는 지금, 수영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었다. 빅터가 일년 동안 두려움과 싸운 후, 알투로는 빅터를 수영장 가운데로 데리고 갔고, 빅터가 배우는 동안 입었던 구멍 조끼를 벗게 했다.

그를 그곳에 두고 가며 알투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했다.

빅터는 그 상황을 극복했으며, 그 도전은 자신이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 후로, 빅터는 구멍 조끼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수영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약 10년 후, 빅터는 폭이 약 5킬로미터 되는 에콰도르의 구아야스 강을 횡단하는 수영 대회에 참가했다. 물살이 썰으며, 물은 더럽고 차가웠다. 그는 약 120명의 수영 선수들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장애인 선수였다고 말했다. 많은 경쟁자들이 경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그는 강을 끝까지 횡단했다. 그는 같은 연령 그룹에서 3번째, 전체로는 15번째로 들어왔다.

### 다른 사람을 돕는 이력

빅터와 그의 이야기는 그의 고향인 에콰도르 구아야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삶의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행복의 일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아내인 메르세데스 자매는 그들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TV에 출연하도록 초대받은 적이 한 번 있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들을 세우고는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아들은 다리를 잃었는데, 빅터의 이야기가 그에게 의욕을 가져다주었다. 그 소년은 “그분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할 수 없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촬영: 에델 시 옴스

**빅터는 결혼 후 수 년동안 자신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도운 아내 메르세데스에게 공적을 돌린다.**

그는 언젠가 구도자를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과 동행해 갔다. “그분은 여러분 교회의 회원입니까?”라고 그 구도자는 빅터를 보고 물었다.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구도자는 “그분이 회원이라면, 당장 제게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의 모범,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그의 방식 때문이에요.”라고 에콰도르의 교회 고용 자원 센터에서 남편인 클라인 롱 형제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한 앤 롱 자매가 말했다.

실업자들이 센터에 찾아왔고, 빅터에 관한 녹화된 뉴스를 본 후 그들은 종종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얻도록 자극을 받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계거리가 없어요.’”라고 롱 자매는 회상했다.

### 빅터의 차례인가?

선교 사업의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빅터를 아직 만나 보지 못한 롱 부부는 그를 찾아서 그가 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도운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귀환 후, 그들은 빅터가 인공 다리를 받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롱 부부는 인공 수족을 기꺼이 기증하고자 하는 미국의 한 회사를 찾았으나, 페나피엘 부부가 2006년 6월 유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대화 착오로 인해 인공 다리가 아닌 인공 발이 기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빅터와 메르세데스

페나피엘은 7월 24일까지 인공 다리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유타 주의 여러 매체 기관이 빅터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고, 기금 관리 조직이 설립되었다. 크고 작은 기부금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이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빅터가 말했다.

### 사건의 전환

기부금을 통해 인공 다리를 위한 충분한 돈이 마련되었다. 빅터는 다시 “걷고, 걷고, 또 걷는” 능력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2006년 7월 13일, 빅터는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30년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인공 다리는 걷다가 힘든 고통을 일으켰다. 인공 다리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러한 고통은 만약 그가 계속해서 인공 다리를 사용한다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의사들이 외과적으로는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권유한 신경상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빅터는 자신의 새로운 다리를 포기해야

만 하는 것이 슬펐으나, 그는 특유의 태도로 의사들이 신경상의 문제를 발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빅터는 자신의 인공 다리가 아이티 사람들에게 기증될 수 있도록 “걷고, 걷고, 또 걷겠다.”는 그의 꿈과 함께 그 다리를 제공해 준 회사에 기증했다.

빅터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그 인공 다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뿐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말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터는 그 대신 전동 휠체어를 받았다.

“저는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는 그 일이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비록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신경상의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알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나 손, 팔 또는 다리 하나를 잃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이 있는 한 행복해질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빅터는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

## 2006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까”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113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와 201 (예수 강탄)을 보여 준다. 두 그림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해 준다. 첫 번째 그림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임을 설명한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실제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시현을 통해 구주의 탄생을 보았으나, 구주를 예수라 부르지 않았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칭호를 사용했다.

다음 단어들의 글자를 뒤섞어 놓은 종이를 보여 준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이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그 칭호가 몇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글자로 시작되는지 말해 주면서 글자를 뒤섞어 놓은 종이를 하나씩 준다. 퍼즐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몇 초마다 힌트를 준다. 아이들이 그 퍼즐을 풀 때, 나누어 주었던 종이 뒤에 정확한 단어를 적는다. 유성 펜에 깃털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그림 속의 이사야처럼 “깃털 펜”으로 쓰게 할 수도 있다. 다섯 개의 칭호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림에 있는 아이를 위해 사용했던 칭호들이다. 아이들에게 이사야서 9:6을 찾아서 나온 순서대로 종이를 놓게 한다. 각 단

어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칭호인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구주에 관한 성탄절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오셨음을 간증한다.

2. 어린이들에게 창세기 1:16을 읽게 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큰 빛”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태양) 커다란 노란색 공이나 태양의 그림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만약 해가 켜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물어본다.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만약 선지자가 어느 날 해가 지고도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물어본다. 그들은 덜 무서워하겠는가? 그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경전을 통해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

비록 예수께서는 필멸의 몸을 가지셨을 때 미대륙에 살지 않으셨지만,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분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말해 준다. 이사야서 9:6과 니파이후서 19:6을 살펴본다.

예언이 기록된 경전에서 구주에 대해 간증한 몰몬경의 선지자들을 짝짓는 게임이다. (니파이—니 파 이 후 서 25:19; 베냐민 왕—모사야야서 3:5; 아빈아다이—모사야서 15:1; 엘마—엘마서 7:10; 사무

엘—힐라맨서 14:2) 복음 그림 패킷 또는 초동회 4 그림 패킷에서 이 선지자들의 사진을 게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칠판 위에 각 선지자의 이름을 쓴다. 어린이들에게 경전 구절 중 하나를 찾도록 몇 분의 시간을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언을 읽고 해당되는 선지자와 짝짓게 한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제언: 위에서 언급된 다섯 명의 선지자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다섯 명의 어린이들에게 언급된 선지자들을 묘사해 주는 간단한 의상을 입게 한다. 경전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을 읽는다. 각각의 아이가 어느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힐라맨서 14:3~4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태양이 비치고 있지 않았는데도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에 대한 적절한 표적이었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간증한다. ■





# 그녀의 ‘젊은’ 신앙

부산 서 지방부 괴정 지부 고혜자 자매

신앙을 꽃에 비유하자면 고혜자 자매의 신앙은 막 피어나기 시작한 수줍은 수선화일 것이다. 맑은 공기와 물을 가득 받아들이며 싱싱하게 성장하는 꽃. 고혜자 자매는 올해 3월 5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66세의 고 자매에게 성장이란 단어는 특별하다. 인생의 황혼기,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준비할 나이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고혜자 자매는 자기 자신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라고 표현한다.

고 자매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구 지부(현재 수정와드 건물)가 있던 부산의 수정동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고혜자 자매는 마당과 뜰에 초목이 우거진 동구 지부 건물을 보며 어떤 교회인지 늘 궁금해 했었다. 하지만 고 자매는 교회 안으로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고 그렇게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2001년, 고 자매는 선교사가 나눠 준 ‘영어 회화’ 전단을 받게 된다. 평소 영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 늙어서 주책이라 할까봐.” 배움의 기회를 미루고 있던 고 자매에게 그 전단은 새로운 기회였다. “처음엔 교회라는 인식을 못했어. 십자가도 없는데다가 1층에서만 영어 회화를 했기에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죠.” 그렇게 또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고 자매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생들을 영어 회화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매 선교사들을 따라다녀 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1층에서만 머물렀다. 선교사들은 문자 그대로 ‘장수 반원’인 고 자매를 침례의 물가로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일요일 아침 8시 반이면 전화를 해서 성찬식 참석 권유를 했던 비운 장로의 노력은 고 자매를 감동시켰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걸 보면 이 교회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 자매는 영어 회화를 마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옛날 가졌던 궁금증이 다시 떠오르는 걸 느끼며 올라간 2층에서 고 자매는 예배당을 보게 되었다. 그곳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용함과 편안함이 있



고혜자 자매와 그녀의 제자들. 왼쪽부터 헤빈이와 은영이.

었다. 그 후 고혜자 자매의 마음속에는 침례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그 싹은 3월 5일 따뜻한 봄날에 대신 지부 회원들의 축복과 선교사들의 축하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물론 침례를 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 쉴 수 있는 날이 딱 일요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찍 일어

나야 한다는 게 ...”

하지만 고 자매는 이겨 냈다. 쌓여만 가는 세월의 무게로 그녀의 육체는 피로하고 힘들었지만 막 피어나기 시작한 신앙과 간증은 그 모든 것을 이겨 내게 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안식일 아침이 즐거워졌다. “회원들이 직접 말씀을 하고 간증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참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즐거워졌고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지요.”

고혜자 자매는 벌써 3명의 어린이들을 개종시켰다. 최근에 침례 받은 홍현빈, 도기영, 도은영 자매 모두가 고 자매의 제자들이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고 자매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소개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고 자매는 개종한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새삼 교회의 참됨을 느꼈다. “66살의 저와 10살 남짓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큰 축복이지요.”

고 자매는 이제 물문경 읽기에 여념이 없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궁금증만 품고 보내 버린 지난 50년의 세월이 아쉬워 잠시도 쉴 수 없다. “저는 이제 강물에 발목만 담근 상태입니다. 어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환하게 웃는 고혜자 자매의 주름진 얼굴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초창기 대전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 부부와 선교사들

## 대전 선교부,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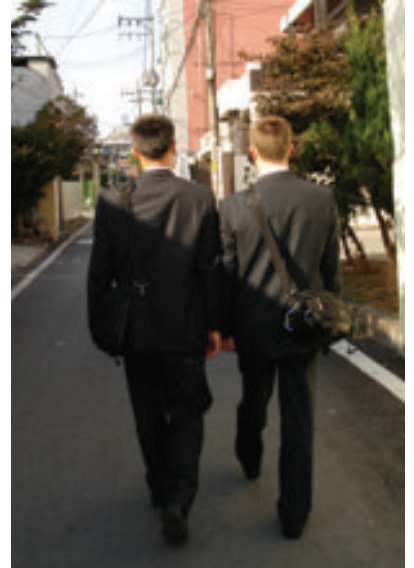
대전 선교부는 한국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선교부로 1986년 7월 1일에 조직되었다. 당시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의 싹이 움트기 시작할 때였다. 초대 대전 선교부 회장인 홍무광 형제를 필두로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전라도의 전 지역을 다니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햇살을 비추었다. 그 햇살 속에서 수많은 싹들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그리고 지금, 대전 선교부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가장 큰 선교부가 되었다.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등 네 개의 스테이크와 홍성과 순천 두 개의 지방부에서 91명의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다.

# 정(情)이 가득한 곳, 대전 선교부에 가다

## 선교사들, 길을 걷다

넬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은 대전 선교부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기사로 만들기에는) 지루한 곳”이라는 농담을 던진다.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한참을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이 없다. 한국에 있는 네 개의 선교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는 점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이동 거리가 길고 특히 두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소위 말하는 산간오지 구석구석까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점도, 넬로우 회장이 매달 5,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돌려한다는 점도 대전 선교부에서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넬로우 회장은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과 근면을 요구하고 있는 성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기꺼이 이동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특별함의 예로 든다. 그것은 바로 대전 선교부 지역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다는 ‘정(情)’. 페디스 장로는 순천 지방부에서 봉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이라는 말에 힘을 준다. “보통 선교사들이 회원 가정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나누거나 깜짝 선물을 주곤 하는데 이곳 회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교사 숙소 앞에 음식을 두고 가거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붙여 놓고 가곤 합니다. 전 그때마다 ‘정’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공기가 흘러 바람이 되듯이 대전 선교부에서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마음, 바로 정을 통해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



## 문자 그대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대전 선교부의 목표는 무엇일까? 넬로우 회장과 선교사들은 여러 답변을 한다. 시온의 선교부를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 그중에서도 유독 한 가지 대답이 귀에 들어온다. “진정한 개종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개종이란 무엇일까? 넬로우 회장은 “침례는 시작일 뿐”이라며 입을 연다. “후일이 가까워오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언뜻 선교 사업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진정한 개종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집으로



홍성의 영어 회화반. 선교사들의 열렬한 지지자인 이들은 열성적인 반원들이다.

가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대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선교사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뱀로우 회장이 말하는 규칙 속에는 좀 더 여러 의미가 들어 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회원으로부터 소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개는 바로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받기 위해서) ‘순수한’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 사업에 집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순수한 선교사’야말로 기꺼이 하나님의 소개를 받아 진정한 개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전 선교부에 다른 선교부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그대로를 규칙으로 적용할 뿐이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규칙 안에서 축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전 선교부는 뚜렷한 목표 속에서, 순종을 통해 얻는 주님의 신뢰 속에서 그렇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 그리고 두 개의 지방부

대전 선교부에는 홍성과 순천 두 개의 지방부가 있다. 두 곳엔 작은 지부들이 모여 있다. 지역은 작지만 그곳의 간증과 신앙은 결코 작지 않다. 홍성과 순천 두 지

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이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두 곳의 지역 중 홍성을 다녀왔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변화가의 끝까지 걷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을 알고 있다. 홍성에서 오랫동안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오화자 씨는 선교사가 지나가자 얼른 굴 한 소쿠리를 담아 준다. “이들 같은 선교사들에게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오화자 씨는 씩스러운 듯 말끝을 흐린다. 그리고 또 감 두 개를 집어 선교사들의 손에 쥐어 준다.

홍성에는 화요일 11시마다 홍성도서관에서 영어 회화가 열린다. 1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재순씨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젊은이들이지만 겸손하고 도덕적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유일한 남자 반원인 최경구씨는 92년부터 홍성 지역의 영어 회화에 참석한 장수 반원으로 선교사가 아플 때 약을 사 주는 등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다. 영어 회화를 통해 자녀와 함께 개종한 한현희 자매는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싶어 개종을 결심했다.

아머 자매와 금선자 자매는 올해 4월부터 홍성 지역에서 봉사 중인 자매 선교사다. 이 둘은 영어 회화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홍성의 전 지역을 다니며 선교 사업을 한다. “차비가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

차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 길을 한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금선자 자매는 선교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한다. 홍성 지역에서 봉사하는 다른 선교사들도 비슷한 대답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이 훌륭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주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홍성의 선교사들은 침례 받은 개종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못내 가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행복하다.”고 외친다. 20대 중반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느끼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아머 자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에(최정근 장로), 홍성 회원들의 강한 신앙을 볼 수 있기에(한순형 장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다. 하지만 바로 이 소박한 행복이 있기에 오늘도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주님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고 있다.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일은 제 삶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와 자매가 함께 선교부를 여행할 때 이 땅의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선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보여준 충실함과 의로움에 큰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선에 대한 커다란 힘과 행복의 원천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입니다.”

- 노먼 알 뱀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

#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늘 예수님께 받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게요. 전국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거 다 알아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김민서, 여, 6살, "예수님, 동생 빨리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서진이에요. 제가 지상에 태어난 것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가지 여쭙 볼 게 있는데요, 복천년이 언제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진짜면 연락을 주세요. 052-287-XXXX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진, 남, 11살,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성경과 물문경 모두 읽었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기도도 하고, 식사 기도도 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합니다. 비록 아침 기도는 안 할때도 많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힘든 것은 사라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도 모두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내일

입술을 꿰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할머니가 잘 아시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오늘 안에 꿰매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병원 문을 닫았지만 병원을 열고 제 입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는 신앙으로 가는 맨 처음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정다솔, 여, 13살, "재주도에서 살아요."

**저**는 엄마가 "우리 아들"하며 안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윤석권, 남, 10살, "초등학교 재밌어요."

**가**족들과 산에 올라갔는데 다람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동물을 창조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정현조, 남, 8살, "정의반입니다."

**몇**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합기도 학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찾게 되었고, 겨우 합기도 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간구라도 들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김인현, 남, 13살, "이젠 띠를 안 잃어 버려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열매도 주고 잎도 주고 나중에는 줄기까지 주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벽입니다. 내가 힘들 땐 기대어 쉬게 해 주는 예수님은 든든한 벽입니다.

예수님은 해바라기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일편단심 해바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는 예수님은 그림자 같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부를 때 따스한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양유선, 여, 9살, "시 쓰는 걸 좋아해요."



장규이, 여, 12살



남나래, 여, 10살



배소희, 여, 12살



송진호, 남, 10살



양한음, 여, 9살



전규은, 여,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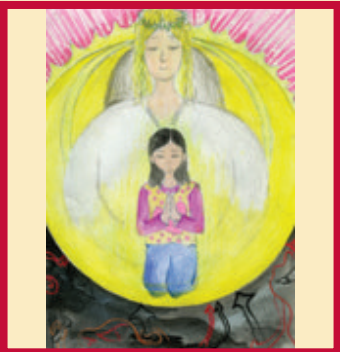
양한슬, 여, 7살



양한지, 여,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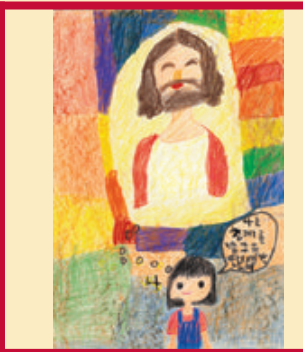
유시현, 남,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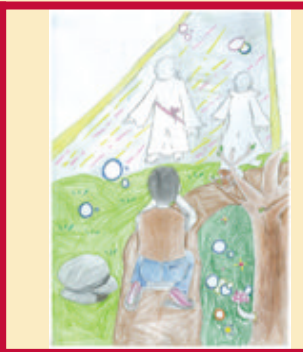
이사람, 여, 11살



이우람, 남, 7살



조성은, 여, 10살



최승혁, 남, 13살



캐를, 여, 10살

# 가서 행하겟나이다

## 부름

성전 회장으로 부름 받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종철 성전 회장은 “어느 부름을 막론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성전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성전 회장단 부부의 희생과 봉사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부름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종철 회장은 48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 비단 전 회장뿐만이 아니다. “부름과 봉사가 곧 생의 십일조”라고 간증하는 정운 회장과 성전 회장단이라는 부름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천낙서 회장 모두 모든 부름에 거절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특히 천낙서 회장 부부는 내년 4월에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전 회장단 부름을 받은 후, 천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슴없이” 부름을 받아들였다.

## 성전 회장단의 아내들

인터뷰 도중 전종철 회장의 농담 한 마디가 좌중을 즐겁게 했다. “몬슨 회장님이 94년 선교부 회장 부부를 위한 훈련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을 어떻게 부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장 될 형제의 아내를 보고 그분이 좋은 분으로 판단되면 그 형제를 선교부 회장으로 부릅니다.”” 전종철 회장의 말에 모두들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 명의 성전 회장단이 주님의 부름을 수행하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인들의 역할이 컸다. 천인덕 자매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소감을 말하면



그 옛날 척박한 한국 땅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한국 서울 성전의 새로운 성전 회장으로 부름 받은 전종철 회장 그리고 정운 회장과 천낙서 회장은 모두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 호흡한 이들이다. 성전 회장단의 자매들도 마찬가지다. 성전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게 된 차영심 자매와 메이트론 보조로 봉사하게 된 김영숙 자매 그리고 천인덕 자매 모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50년을 넘나드는 이들의 신앙과 간증은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순수하다. 그래서일까?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는 지난 11월 7일, 새로운 성전 회장단과의 인터뷰 자리는 두꺼운 옷이 무색하게 새봄처럼 따뜻하고 정겨웠다. 새로운 성전 회장단 부부. 왼쪽부터 정운 회장, 김영숙 자매, 전종철 회장, 차영심 자매, 천낙서 회장, 천인덕 자매.

서 눈물부터 글썽였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늘 한국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운 형제의 부인인 김영숙 자매는 메이트론 보조 부름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부름이 나를 보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차영심 자매는 “(메이트론 부름이야말로) 형제인 전종철 회장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힘을 모아 성전에 오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성전을 찾는 모든 회원들에게

“성전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켰을 때의 결과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 성전을 가장 높은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전종철 성전 회장 -

“주님의 집인 성전은 이 지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며 주님의 사업

은 항상 발전하고 번성합니다. 다 함께 이곳에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 정운 제1보좌 -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은 여러분의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영생과 승영을 준비하는 곳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형제자매님들께 봉사하겠습니다. - 천낙서 제2보좌 -

인터뷰를 마치자 성전 회장단 부부는 점심도 거른 채 서둘러 일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주님의 집에서의 봉사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간 쌓아 온 행복의 표정이 세월의 흔적보다도 깊게 새겨있었다.

## 새로운 공보 선교사, 마우어 장로 부부



높은 망루에 올랐던 베냐민 왕도, 담대히 사람들 앞에 섰던 앰블레크도 그리고 이 지상에 주님의 복음을 회복시킨 조셉 스미스도 다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복음은 참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여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외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부부가 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공보 선교사라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를 넘긴 나이로 태평양을 건넌 부부가 있다. 마우어(Mower) 장로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판즈위스 장로 부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공보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마우어 장로 부부는 사실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남편인 마우어 장로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왔다. 그때가 1963년으로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터라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마우어 장로는 선교사로 봉사하며 ‘훌륭한 성품을 지녔지만 가여운’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뒤 귀환했다. 그러나 마우어 장로의 한국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3년의 복무 기간 동안 마우어 장로는 한국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키우게 됐고 해마다 연차 대회 때면 한국 출신의 귀환 선교사들과 모여 한국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정말로 더 큰 인연은 다른 곳에 있다. 마우어 자매, 귀환 선교사들이 모일 때면 손수 김치를 만들어 대접한다는 마우어 자매가 바로 한국인인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공보 선교사라는 부름을 통해 한국과의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우어 장로가 선교사로 부름 받아 한국에 온지 꼭 44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마우어 장로 부부는 한국의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고맙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이 땅에 공보에 대한 좋은 씨를 많이 뿌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두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참된 교회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는 단순하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얼굴에 곱게 자리 잡은 주름처럼 혹은 세월의 깊이를 가진 아름다운 미소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공보 활동을 기대해 본다.

## 지역단신

-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름 캠프  
스테이크 대회
- 서울 스테이크  
제1회 서울 패전트 - 12월 25일 청운 와드에서 제1회 서울 패전트 공연이 열린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순천 지방부  
우정의 밤 - 지난 10월 28일 지방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을의 소리'라는 이름 하에 우정의 밤을 가졌다.
-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 지난 9월 24일 전 성전 회장이었던 이도환 형제 부부와 함께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 제주 지방부  
지방부 대회
- 한국 문화의 밤  
2006년 9월 29일 유타 주 바운티폴 지역 센터에서 '한국 문화의 밤' 모임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http://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리아호나 특별 구독 캠페인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글 잡지 '리아호나'가 특별 구독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및 구독 기간 조정과 함께 연장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모로나이 천사 모양의 서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단이나 잡지 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후 하와이를 다녀와서**

송성아 자매(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송성아 자매와 김 밀러 형제의 두 아들.

“알로하(Aloha).”

하와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 인사를 들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최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일이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고 하와이로 가게 된 일이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달콤한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찬란한 자연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2주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야외 활동을 하며 하와이의 문화와 자연을 직접 체험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와이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은 세계 속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청소년들이었지만 후기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선교 사업을 잘 계획이 있는 사람?”이란 선생님의 질문에 일제히 올라가는 손을 보며, 각국의 청소년들이 전세계로 나아가 주를 증거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2주간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김 밀러’ 형제님 가족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님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제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신 김 형제님은 제게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

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2주간의 여행 동안 저는 얻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통해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제281기 12명



**김경섭**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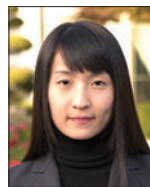
**안홍성**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김아영**  
인천 스테이크  
담동 와드  
서울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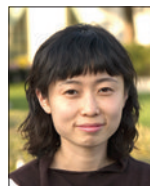
**연수정**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부산 선교부



**김해숙**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대전 선교부



**이재원**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마의진**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전부경**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서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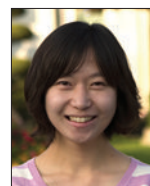
**손선경**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부산 선교부



**최찬경**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안진숙**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부산 선교부



**한경주**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동대문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민혜기(전임: 손승주)  
제1보좌: 김승겸(전임: 박광식)  
제2보좌: 배상기(전임: 김승겸)

**인천스테이크**

담동 와드와 용현 와드가 통합되어 담동 와드로 명칭 변경  
담동 와드 감독: 정웅섭(전임: 정홍교, 정웅섭)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감독: 박지훈(전임: 김연학)  
시흥 와드 감독: 김종인(전임: 김현일)